

Morning Meeting Brief

산업 및 종목 분석

[Issue Comment] 현대건설기계 : 현대중공업주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은 호재

- 9/28 현대중공업주주는 KDB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에 참여.
- 매각의 주체는 현대중공업주주로 현대건설기계는 자금이 들어가지 않음.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계열회사가 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공급망, 유통망, 기술 공유 등의 시너지 확보 가능
- 현대중공업그룹은 산업 내 1, 2위 업체로 인수 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. 그러나 인수가격에 대한 부담 존재.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가격은 두산중공업 지분 36%에 대해 7,000억원 ~ 1조원 예상. 입찰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
- 다만 현대건설기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인수 성공 시 시너지 기대로 입찰 과정에서는 긍정적 이슈

이동현. dongheon.lee@daishin.com

현대건설기계 Comment

－ 현대중공업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은 호재

이동헌 dongheon.lee@daishin.com 이태환 taehwan.lee@daishin.com

2020.09.29

투자의견

BUY

목표주가

27,500원

현재주가

26,800원

9/28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 참여

-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의 자구안 이행을 위해 매각 진행 중
- 현대중공업지주는 KDB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입찰에 참여
- 현대중공업지주는 8/7 조화공시 답변을 통해 인수를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밝힘. 9/28 제안서 제출로 해명공시
- 기존 사모펀드 위주의 입찰을 예상했으나 현대중공업지주의 참여로 일단은 흥행에 성공

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

- 매각의 주체는 현대중공업지주로 현대건설기계는 자금이 들어가지 않음
- 매각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영역이 겹쳐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음
-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서는 계열회사가 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공급망, 유통망, 기술 공유 등의 시너지 확보 가능
- 중국시장에서는 로컬업체들과의 경쟁격화로 영업망 및 기술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

인수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, 가격과 시너지에서는 불리

- 현대중공업그룹은 산업 내 1, 2위 업체로 인수 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
- 그러나 인수가격에 대한 부담 존재. 현재 시가총액이 현대건설기계는 5,280억원, 두산인프라코어는 1조 9,217억원
-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가격은 두산중공업 지분 36%에 대해 7,000억원 ~ 1조원 예상
-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자회사 두산밥캣을 제외한 매출액은 3조 6,763억원, 현대건설기계는 2조 8,521억원
- 현대건설기계의 매출액은 두산인프라코어의 77.6% 수준이고 사업영역도 상당 부분 겹침
- 사모펀드들과의 경쟁으로 입찰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
- 다만 현대건설기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인수 성공 시 시너지 기대로 입찰 과정에서는 긍정적 이슈

▶ Compliance Notice

- ✓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✓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✓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- ✓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